

어느 날, 우리 집 고양이가 말했다

독후 활동지



어느 날,
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!
우리 집 고양이가 말을 한다고?

사람이 되고 싶던 고양이,
바다와 태양이의 우당탕 사람
체험기!

박정안 글 | 김고은 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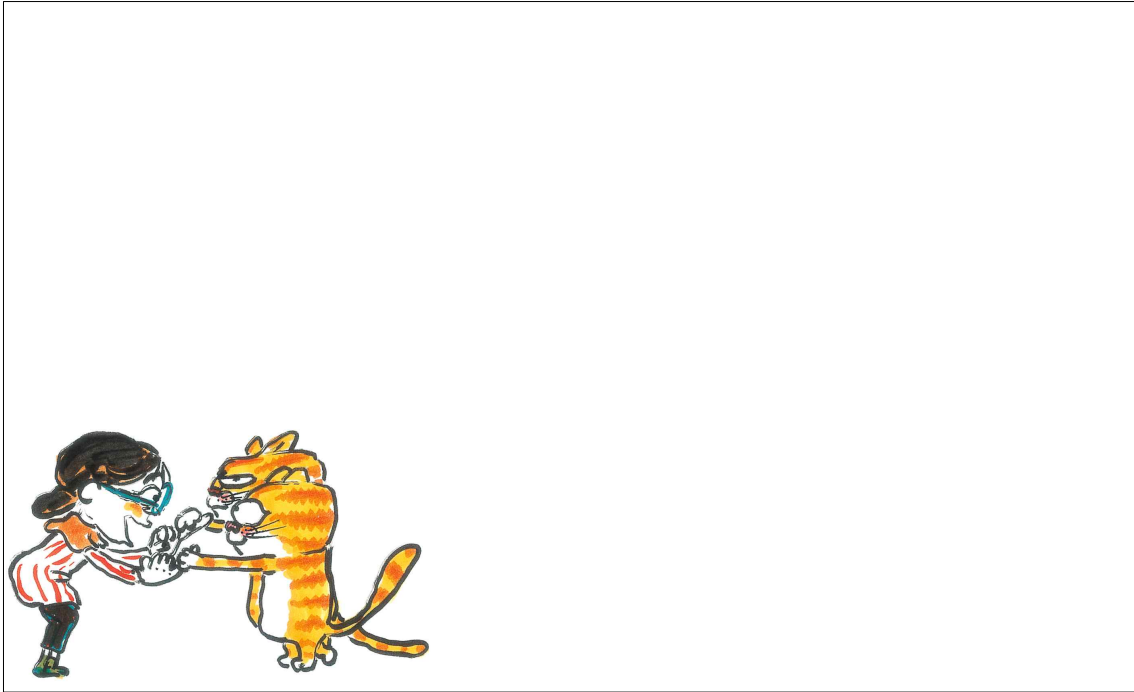
★ 교과 연계

- 국어 2-1 8. 마음을 짐작해요 11. 상상의 날개를 펴요
- 국어 3-2 9. 마음을 읽어요
- 국어 4-1 1.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
- 10.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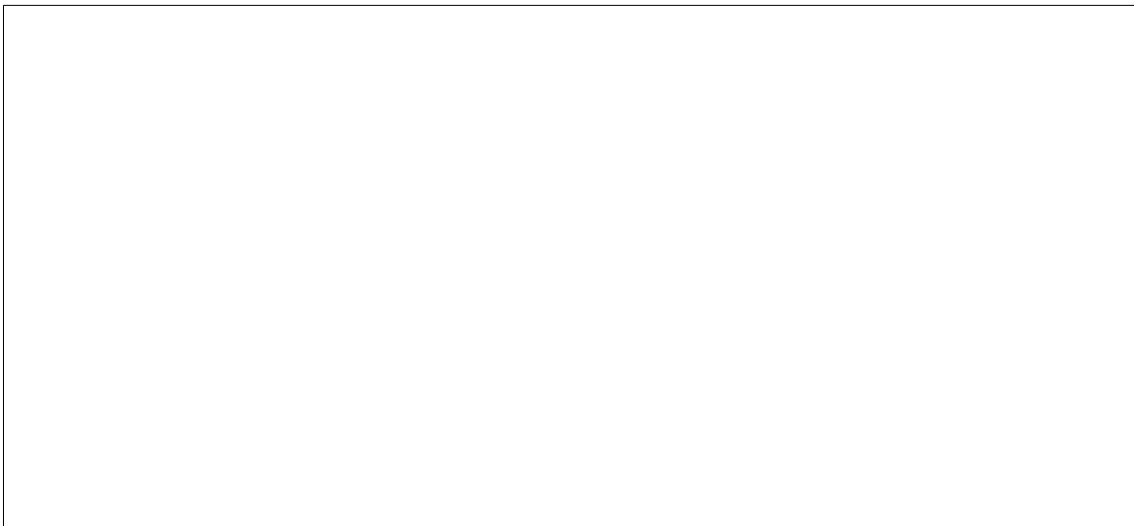


[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]

1. 반려동물을 키워 보고 싶다면, 어떤 동물들을 키우고 싶은지 마음껏 상상해 보아요. 이미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싶은 또 다른 반려동물을 상상해 보아요.



2. 만약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, 걸어 다닐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말하는 고양이, 말하는 거북이 등,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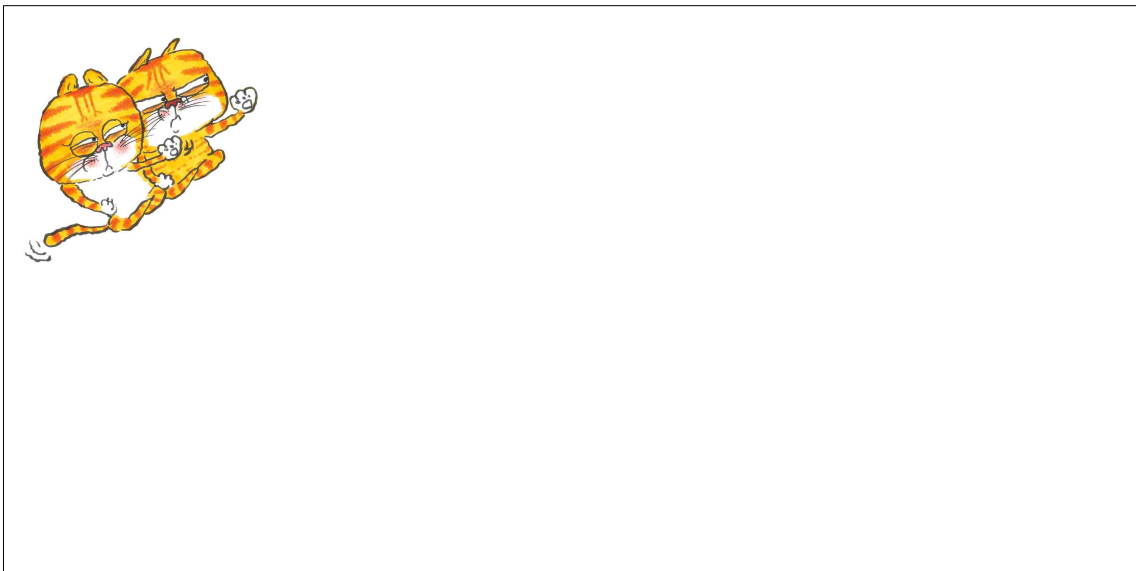



[책을 읽은 후에 생각해 보아요]

1. <어느 날, 우리 집 고양이가 말했다> 속 고양이 태양이와, 바다는 엄마의 공부 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.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. 하지만 고양이들이 역지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재 고양이가 될 수 있을까요? 동화 속 결말을 떠올려 보며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.



2. 바다와 태양이는 엄마 때문에 역지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, 다른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고양이였을지도 몰라요. 바다와 태양이가 수학 공부나 한글 공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면, 무엇을 배우고 싶었을까요?



3. 친구들은 어떤가요?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공부, 수학 공부 말고도 진짜 스스로 해 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? 바이올린 켜기, 만화 그리기 등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언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.

